

광주 30분 일 덜 하고 전남 12분 더 한다

주 52시간 근로 도입 1년...7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1년, 광주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30분 덜 일하고 전남은 12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을 뜻하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7월 기준으로 광주 40.7시간, 전남 40.5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광주지역 근로시간은 0.5시간(41.2→40.7) 짧아졌고, 전남은 0.2시간(40.3→40.5) 길어졌다. 전국 평균은 40.8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7시간 줄어들었다.

광주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줄어든 데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고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광주 취업자 가운데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은 지난해보다 8000명(6.1%) 증가했고 36시간 이상은 1만 2000명(-2.0%) 줄었다.

광주 40.7·전남 40.5시간

7월 취업자·고용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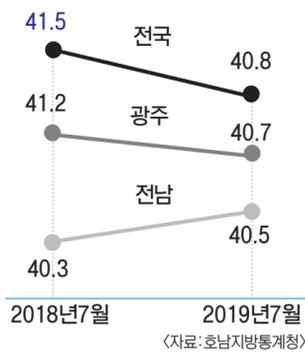
전년비 광주 줄고 전남 늘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0.2시간 늘어난 전남지역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2만5000명, 건설업이 1000명 늘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은 1만4000명이나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과 농림어업(4000명↓)도 줄어들었다.

7월 취업자와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는 줄어든 반면 전남은 늘었다.

광주지역 취업자는 74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00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59.3%에서 59.1%로 0.2%포인트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64.0%)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고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소

■ 광주·전남 주당 평균 취업시간



매·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이 4000명 증가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연임 고용통계팀 통계주무관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 영향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이 4000명 늘었다"며 "관련 산업 취업자는 농

림어업에 이어 두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오 주무관은 이어 "광공업, 건설수주 경기 4월부터 나이지는 상황이지만 고용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지난 달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는 6000명(-7.8%) 줄고, 건설업 취업도 6000명(-7.4%) 감소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실업률은 3.3%로 0.5%포인트 줄었다. 남성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5000명 줄었지만 여성 실업자는 1000명 늘어서 7월 실업자는 2만6000명을 기록했다.

전남 취업자는 96만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000명 늘면서 고용률이 0.3%포인트 상승한 63%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9000명(34.1%)이나 늘면서 실업률은 3.4%로 0.9%포인트 상승했다.

호남통계청은 지난 달 14~20일 전국 표본조사 가운데 광주 1600·전남 18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18일까지 영동 복숭아·포도주 특산품전

복숭아·포도주 등 충북 영동군의 대표 농식품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만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박상영 광주점장과 김창호 영동군 부군수는 전남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특산품 산지 직송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동군 특산품 복숭아와 4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으로 선정된 '사토미소 와인'을 비롯해 사과, 포도와인, 과일 식초 등 총 50여 종을 선보인다. 이들 상품 가격은 시중가 대비 30~50% 저렴하다.

광주점은 특별전을 열며 복숭아, 와인, 주스 시음행사를 진행하고, 즉석 문제를 푼 고객에게 복숭아를 무료로 증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8일까지 충북 영동군 복숭아와 '사토미소 와인' 등을 선보이는 '영동 특산품전'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정부 '유튜브稅' 본격 논의...방송통신기금 징수 검토 디지털세 연구과제 수행 요청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 및 기금 부과,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

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

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그런데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

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상장법인 상반기 실적 살펴보니

금호타이어 10분기만에 적자 탈출

금호산업·오이솔루션

위니아딤채도 흑자 전환

금호타이어가 10분기 만에 만성 적자를 탈출했다. 올들어 주가가 치솟은 오이솔루션도 흑자 전환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코스피 상장기업 금호타이어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39억9766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매출은 0.1% 감소한 6169억8695만원

을 나타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1.91%에서 3.89%로 개선됐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영업이익 91억9314만원 흑자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기아차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와 현대차 쉐라티 리무진에 대한 신차용 타이어 독점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앞서 지난 5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도 30개월만의 흑자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시장에서는 탄력적 운영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해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며 "글로벌시장에서는 북미·유럽 시장의 환경 규제와 법규 강화, 자동차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완성차 생산 감소로 납품량이 줄었지만 매출원가와 판매관 리비를 낮춰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브랜드 가치 안정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2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핵심 고객과 핵심 제품 집중을 통한 시장 대응 및 판매역량 강화, 유통망 보강, 영업조직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대표 코스피기업 금호산업은 2분기 매출액이 4507억8482만원으로 전년

동기(3455억8338만원) 대비 30.4% 증가했다. 지배지분 순이익은 176억1467만원으로 전년 동기 -51억7718만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4506억6105만원으로 전년 동기 3454억2980만원 대비 30.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5억6498만원으로 전년 동기 120억9977만원 대비 20.3% 늘었고, 순이익은 180억1895만원으로 전년 동기 108억984만원 대비 66.6% 증가했다.

광주 코스닥 상장법인 오이솔루션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5억2961만원으로 적자(전년 동기 -1억9095만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오이솔루션의 2분기 매출액은 560억3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186억5269만원 대비 200.4% 증가했고, 지배지분 순이익은 112억7894만원으로 전년 동기 16억4107만원 대비 587.2% 늘었다.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560억597만원으로 전년 동기 187억8874만원 대비 198%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8억7054만원으로 전년 동기 -1억3695만원에서 흑자 전환했고, 순이익은 116억4876만원으로 전년 동기 16억5658만원 대비 603.1% 증가했다.

오이솔루션은 올들어 주가가 크게 치솟았다. 1월2일 올해 첫 개장에서 1만7000원이던 주가는 지난 14일 6만2000원으로 마감했다. 7개월 14일만에 264.7%(4만5000원) 급등했다. 2분기 실적에 반영한 주가수익배수(PER)는 20.1배, 주가순자산배수(PBR)는 6.25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1.1%다.

코스닥 기업 위니아딤채도 영업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위니아딤채는 1분기 -21.6%이던 영업이익률을 2분기에 1.2%로 22.8%포인트 끌어올렸다. 매출은 17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억6338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조달청, 다음주 179억원 규모 입찰

광주지방조달청이 179억원 규모 입찰을 오는 23일까지 집행한다.

15일 조달청 '물품·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에 따르면 광주조달청은 오는 19~23일 24건 179억원 규모 입찰을 집행한다.

광주조달청의 이달 넷째 주 입찰규모는 전체(3102억원)의 5.7%로, 올해 누계분 점유율은 6.7%이다.

주요 입찰 내용을 보면 전남지방경찰청이 제공한 84억9500만원 규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 용역(협상 계약)을 오는 20일 개찰한다. 한국전력공사는 '클라우드PC 구축 자재 구매'(22억6100만원·협상 계약)건을 같은 날 개찰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부본부도 14억2700만원 규모 '전남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계측감시장치 제조·구매 설치'건(적격 심사)도 이날 개찰한다. /백희준 기자 bhj@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